

서양화 배웠지만 한국을 그렸다

93세로 타계한 '호남 최초 여류화가' 김영자 화백의 삶과 작품

28일 별세한 김영자 화백은 대한민국 화단에서 '살아있는 전설'로 통한다. 그가 걸어온 길은 '호남 최초 여성화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 근대 서양화단의 역사로 통한다. 여성화가가 드물던 시절 일본 동경 우에노 미술전문학교에서 공부, 근대미술을 국내에 소개했다. 한국 최초 여성화가인 나혜석 선생에 이어 동경 우에노 미술학교에 입학한 두번째 한국인이라는 이력만으로도 그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김 선생은 고교생으로서 1938년 화가들의 등용문이었던 17회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서 작품 '반찬의 재료'로 입선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당시 출품자들이 호남을 대표하는 화가인 남농 허건(동양화), 박수근(서양화)씨 등 쟁쟁한 인물들이었다.

목포 갑부이자 목포시의원을 지낸 김용문 선생의 외동딸이었던 김 화백은 지난 1943년 일본 동경 우에노 미술학교에 입학했다. 자녀 출신 때문에 중퇴한 뒤 귀국길에 올랐으나, 남편이 한국전쟁 때 숨지면서 순탄치 않은 삶을 살게된다.

김 화백은 이때부터 전국을 떠돌면서 무려 60여차례 전시회를 여는 등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붓을 잡았다. 그 덕분에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풍경과 풍속화를 주로 그렸던 그는 70, 80년대 "서양화를 배웠지만 서양을 따르지 않고 한국적인 것을 찾겠다"는 평소 다짐을 실천에 옮겼다. 장터와 산사 등 토속적인 소재를 찾아 헤맸다. 김영자를 대변하는 '농악' 시리즈 등 풍속화는 이런 고민의 결실이다.

그는 오지호, 강용운, 양수아, 배동신 선생 등 광주·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작고 작가들과 교분이 깊었다. 이들의 사랑방은 광주 수기동에 있던 미술연구소로 광주에서 처음으로 생긴 미술학원이었다. 김 화백과 천경자 화백은 경쟁자이자 동지였다. 김 화백 보다 두 살 적은 천 화백은 김영자 화백의 전시회장을 방문한 뒤 "언니는 이쁘니까 그림이 잘팔리겠네?"라는 뼈있는(?) 농담을 하곤 했다고 한다.

'김영자 화풍'을 이룬 대가였지만 김 화백의 인생은 곡절 그 자체였다. 남편 박문석씨가 한국전쟁 때 숨진 뒤 또 한 사람과 인연이 됐지만 그는 권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김 화백의 예술을 귀하게 여겼다. 1977년 제주 KAL호텔에서 전시 중인 김 화백의

1938년 조선미술전람회 입선 등용
토속적 풍속화 '김영자 화풍' 일궈
천경자 화백과 호남 여류화단 대표
1980년 고향 목포 귀향 봉사자의 삶



생전에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김영자 화백



김영자 화백의 대표작 '농악'

그림을 때마다 그곳을 방문한 박 전대통령이 본 게 인연이 됐다.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김 화백을 종종 찾았고 자연스럽게 후견인이 됐다.

김 화백은 1980년대 서울생활을 청산하고 목포로 귀향한 뒤 화단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했다. 유달산 꽃축제 대회를 8년 동안 맡았고 예방목포인연합회장을 지냈다. 후진양성을 위한 김영자 장학회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김 화백은 지난 2013년에는 자신이 아끼던 작품들을 목포에 기증했다. 전남여성 플라자에 있는 '김영자 화백 미술기념관'은 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는 1922년생으로 여는 화가 같으면 노화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 작업을 할 수 없을 초고령임에도 올 1월까지도 목포 호텔현대대에 있는 현대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에서는 최근 20여년 동안 유화 크로키(croquis) 작업을 선보였다. 결국, 이 전시는 생전 마지막 전시로 남게됐다.

그는 지난해 말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예술 때문에 자식도 버린 모성에 없고 독한 년"이라 욕 먹으면서도 그림이 싫은 적은 없었다"며 "예술가로서 작업에 고상한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겸손해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목포 예총장...삼성장례식장 빈소 조문 행렬

28일 김영자 화백의 빈소가 마련된 목포 삼성장례식장에는 목포·광주지역 예술인들을 비롯해 시장, 시·도의원, 시민 등 조문 행렬이 줄을 이었다.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 개나리축제 추진위원장을 8년간이나 맡으셨고 '예총회'를 직접 조직해 목포 예술발전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기신 한국 화단의 큰 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목포시민을 대표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수제자 김경돈 씨는 "평소 유난히 붉은 색을 좋아해 붉은 계열의 옷만을 즐겨 입었으며, 선생님은 유별나

게 꽃을 사랑해 길을 가다가도 꽃집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 항상 꽃을 사드리곤 했다. 병마와 싸우며 그 힘든 상황에서도 삶의 의지가 대단해서 굶고 맷음이 분명했다"고 고인을 기억했다.

예총장(鄭)으로 지리키 위해 빈소를 지키고 있는 임점호 예총 목포지회장은 "평소에도 목포예술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셨으며, 1980년대 초반 목포예총이 침체기를 겪고 있을 당시 목포 예술계에 불을 지핀 어른이었고 여장부였다"고 회고했다.

목포 삼성장례식장의 김영자 화백 빈소.



목포 삼성장례식장의 김영자 화백 빈소.

동신대 문화박물관 'Art in Art' 특별전

1월 29일까지...작가 9명 참여 '상상의 세계' 선봬



송필용 작 '청류'

나주 동신대학교 문화박물관(중앙도서관 5층)이 2016년 1월29일까지 특별전 'Art in Art'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강동호, 구승희, 김병택, 송영학, 송필용, 위재한, 이상필, 이재일, 호진 등 9명의 작가가 참여해 각기 다른 상상의 세계를 보여준다.

강동호 작가는 상상과 현실이 뒤죽박죽 섞인 만화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Imagine' 시리즈는 아이의 낙서처럼 뒤죽박죽 섞여 있다. 김 작가는 관련 없이 보이는 이미지의 나열을 통해 보이지 않는 질서를 표현했다.

송필용 작가는 최근작 '청류'를 출품했다. 푸른 색 폭포가 거침없이 쏟아지는 형상은 물의 생명력과 기운이 생생히 느껴진다. 송작가가 바라본 폭포는 인간의 지각 너머에 존재하는 예기치 못한 세계를 의미한다.

합성 수지 등으로 제작한 위대한 작가의 작품 '서투른 여행자'는 답답함이 느껴진다. 방독면을 쓰고 있는 사람의 형상은 환경오염에 물든 도시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위 작가는 답답한 도시를 뒤로하고 새로운 공간에 대한 갈망을 '여행하는 몽상가'에 빗댔다. 문의 061-330-382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문화재단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청산도 원정대 시즌 1' 문화부장관상



'청산도 원정대 시즌 1' 마을탐험 프로그램.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한 2015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청산도 원정대 시즌 1'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거시기 흥신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을 수상했다.

문화이모작은 마을 향토인력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해 마을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산도 원정대 시즌1'은 청산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19세 양유준(전남대 1년)군이 청산도 청소년들이 고향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마을탐험 프로그램으로 섬에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삶의 터전을 문화적인 방식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거시기 흥신소'는 실천을 하지 못하는 현대의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문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순천 원도심에서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서로 동기부여를 하며 함께 고민을 나누는 '네트워크 파티' 난해한 : D'(난해한디) 등을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이모작은 마을 향토인력을 문화기획자로 양성해 마을의 문화자원을 가지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청산도 원정대 시즌1'은 청산도에서 태어나고 자란 19세 양유준(전남대 1년)군이 청산도 청소년들이 고향의 아름다움과



박 성 천 소설 집

삶의 불모성에 천착한 따뜻한 언어의 미학



박성천 작가의 소설은 삶의 이면이 어둡고 깊게 드리워진, 아픔과 슬픔을 예리하게 들여다본다. 현실에 짓눌린 등장인물들의 삶은 결코 선블리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도 무참하다.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일상 너머에 무겁게 자리한 삶은 고해(苦海)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삶의 고통을 극복해나가는 인물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은 따뜻하면서도 냉엄하다. 작가는 조금의 과장이나 에두름 없이 날것 그대로를 응시한다. 박성천은 자신만의 소설작법을 확실히 밀고나가면서, 독창적이고도 완성도 높은 형상화라는 그만의 미학을 성취해나가는 데서 빛이 난다.

박성천 소설의 미덕은 삶의 비무함과 냉혹함을 감싸 안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과 인간적인 태도에 있다. 인물들의 처지는 하나같이 외롭고 궁핍하고 궁지에 몰려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주목하고 서사적으로 이끌어간 작가의 특성이 은근하고 순정적이다. 부한 경쟁 체제 속에 나오된 무력한 도시민의 지리한 현실을 예리하면서도 온기 가득한 삶의 언어로 빚어내고 있어 희귀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 문순태 소설가

- 함정임 소설가 등(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박성천 저 | 224쪽 | 컬러 | 값 12,000원